

지나온 반세기 성찰하고 미래 100년 꿈꾸는 ‘50돌 생일상’



1980년 유엔탑



1981년 대연고개



1981년 동천 정비모습



1982년 대연동 모습



1982년 우암국교 주변 도로 개설 기공식



1984년 용호4동의 4호연립 주택가 전경



1975년 10월 1일 남구청 개청 기념식이 대연동 임시청사(당시 대연출장소, 현 남구노인복지관 자리)에서 열리고 있다.



1989년 부산박물관 앞 도로 건설 공사 현장



1989년 부산박물관 앞 도로 건설이 막 끝난 직후 촬영한 모습



1991년 대연사거리 박물관주유소 모습



1992년 영남제분 앞 고가다리 건설 현장

미리 보는 10월 1일 남구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남구노인복지관·구청 구민광장에 ‘기념 표지석’ 설치 지역주민·토박이·기부자 등 개청 기념행사 참석

남구는 오는 10월 1일(수요일) 지난 50년의 성과를 조명하고 미래 10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8시 30분 남구청 구민광장에서 개청 50주년 기념식수 행사가 마련된다. 기념식수로 대표적인 여름 꽃나무인 배롱나무가 식재된다. 꽃이 100일간 핀다고 해서 ‘백일홍’으로도 불리는 배롱나무처럼 남구의 번영과 발전이 오래 지속되길 염원하는 의미를 가진다. 기념식수 행사와 함께 자연석으로 만든 ‘기념 나무 표지석’ 제막행사도 열린다.

이에 앞서 9월 22일 남구 노인복지관에서 ‘남구청 옛터 표지석’ 제막식이 개최된다. 1975년 10월 1일 개청한 남구는 당시 대연동에 있던 부산시 대연출장소 건물을 임시 청사로 사용했다. 이어 1977년 남천동에 신청사(현 수영구청)를 건립해 이전했다. 2년간 사용했던 임시청사는 부산시의 건설안전시험사업소로 활용하다가 건물 노후화로 허문 뒤 2009년 지금의 남구노인복지관을 건립했다. 남구가 처음 출범한 노인복지관 화단에 세워질 옛터 표지석은 화강석 받침석 위에 검은 오석으로 제작되고 ‘이 곳은 1975년 10월 1일 부산직할시 남구청으로 출발한 옛 청사 자리입니다. 개청 50주년을 맞아 그 출발의 의미를 이 자리에 새깁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다.

개청 50주년 기념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기념식은 10월 1일 오전 10시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에서 개최된다. 기념식은 ‘구민과 함께한 50년, 새롭게 도약하는 남구’ 슬로건 아래 지난 50년 성과를 돌아보고 구민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을 다짐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된다.

관내 기관장과 각급 단체장, 지역주민 그리고 역대 구민상 수상자와 토박이 주민, 사랑의 열매·고향사랑고액기부자 등이 참석해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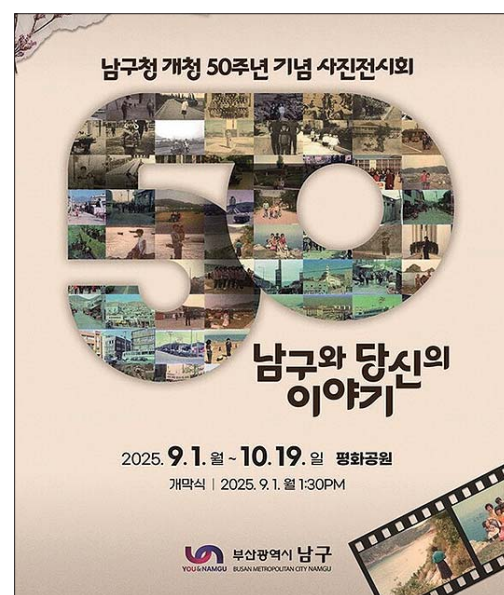
구의 50돌 생일을 축하한다.

축하 떡 케이크 커팅식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슬로건이 인쇄된 타월을 들고 퍼포먼스도 선보인다. 이밖에 LED스크린을 활용한 미디어 퍼포먼스 공연과 토박이중서 수여식, 구정연혁 보고, 개청50주년 기념영상 시청, 남구 어린이들이 적은 소망지 전달 등 다채로운 행사가 1시간 가량 펼쳐진다.

기획감사담당관 ☎607-4012
행정지원과 ☎607-4105



‘50년의 시간여행’ 추억의 남구 사진전



9월 1일~10월 19일 평화공원에서 ‘남구와 당신의 이야기’

남구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사진전시회 ‘남구와 당신의 이야기’가 9월 1일(월)~10월 19일(일) 평화공원 산책로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은 9월 1일 오후 1시 30분 평화공원 내 잔디마당(주차장쪽 입구)에서 열리며, 제막식과 전시 라운딩, 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전시회는 남구청 개청 이후 반세기 동안의 변화와 발전을 조망하고,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일상 속 풍경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남구가 보존해 온 기록사진 71점과 주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진 50점, 총 121점이 전시돼 남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이야기를 전한다. 특히, 사진 속 장면을 AI기술로 복원한 영상을 미디어보드를 통해 현장에서 틀어주고 남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된다. ☎607-4714

‘꿀수면 꿀건강’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남구보건소가 수면건강을 위한 ‘꿀수면 꿀건강’ 프로그램을 9~10월 운영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수면관리와 치료, 인지행동치료를 주제로 강연합니다. 문의·접수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607-6414

구분	날짜	장소	대상	내용
수면 건강강좌	9.8.(월) 16:00~17:30	오륙도인생 후반전지원센터	주민 50여명	—수면 이해 및 관리 —인지행동치료 소개 질의응답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9.17.(수) 16:00~17:00 9.24.(수) 16:00~17:00 10.15.(수) 16:00~17:00 10.22.(수) 16:00~17:00 10.29.(수) 16:00~17:00	남구보건소 보건교육장	10~15명 (건강강좌 참석자 우선 신청)	—수면개선을 위한 5회 과정

첫 말라리아 모기 확인… 야간 야외활동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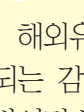
질병관리청이 올해 국내 첫 말라리아 원충 감염 매개모기를 확인하고, 지난 8월 19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말라리아는 원충에 감염된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는데, 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저녁에 야외활동 중 땀이 난 상태에서 휴식할 때 잘 물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발한이 48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며 감염자의 일상적인 접촉이나 공기감염으로는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말라리아 감염 예방수칙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의료기관 방문)

- ▲3시간마다 모기기피제 사용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활동 자제
- ▲야간활동 시 밝은색 긴 옷 착용
- ▲야외활동 후 샤워



해외 여행시 모기매개감염병 조심!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이란 해외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되어 국내로 유입되는 감염병으로 말라리아, 뎅기열, 황열, 치쿤구니아열, 웨스트나일열, 지카 바이러스감염증이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 급성 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피로감, 두통 등이 수주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심근염, 뇌수막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중증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 간 전파는 되지 않으나, 환자를 흡혈하여 감염된 매개모기가 다른 사람을 물어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 ▲여행 전 국가별 감염병 발생현황 및 주의사항 확인
- ▲여행 중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고 3~4시간마다 모기 기피제 사용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이 보이면 의료기관 방문